

The Station

Where Memory Pauses

김이현 지음

유페이퍼

Intro Essay

The Station: 기억이 머무는 곳

기차역은 단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의 시작이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별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에게는,

멈춰 있되 살아 있는 공간,

흐르되 가만히 머무는 감정의 자리였다.

남창역.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시골역이지만,

나는 그곳에서 수많은 장면들과 조우했다.

어느 날은 노인이 벤치에 앉아 고요한 햇살과 함께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플랫폼에 반짝였다.

사람들은 잠시 머물고, 떠나지만

그 순간순간은 어딘가 깊숙이 스며든다.

세상은 기적이었다.

그 기적은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의 집합이었다.

이 사진들은 '기록'이 아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는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고,

그 기억은

다시 보는 이의 마음과 연결되어 살아나기를 바라는 시도이다.

카메라 너머의 나는,

늘 멈춰 있는 듯한 그 역에 서서

나도 모르게 울고 있던, 웃고 있던,

지나간 나 자신을 만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에세이는,

‘기차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차역에서 피어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당신에게도

이곳의 어떤 장면이

기억 속 그리운 한 조각으로 다가가길 바란다.

이현

Intro Essay

The Station: Where Memory Pauses

A train station is more than just a place of departure and arrival.
To some, it marks the beginning of a journey,
to others, it holds the final scene of a farewell.
But to me,
it is a space that **stands still yet quietly breathes**
a moment suspended in motion,
a feeling gently held in time.

Namchang Station.
A small rural station that few notice,
but within it, I encountered countless stories.
On one day, an elderly man sat silently in sunlight.
On another, laughter from children danced across the platform.
People come and go,
but something in those fleeting moments stays.
The world was a miracle.
And that miracle lived in the quiet accumulation of small, ordinary moments.

These photographs are not just documentation.
They are fragments of memory
soft traces that linger,
and perhaps,
they will awaken something within the viewer too.

Behind the camera,
I often found myself quietly watching,
and perhaps, unknowingly,
meeting a version of myself I had left behind.
This book is not just a story about train stations—
it is about the tender, universal stories that **bloom in stillness.**

I hope one of these scenes finds its way into your memory,
as something quietly familiar—
a piece of your own story.

IHyun

CHAPTER 1 들어서는 시간

: The Moment of Arr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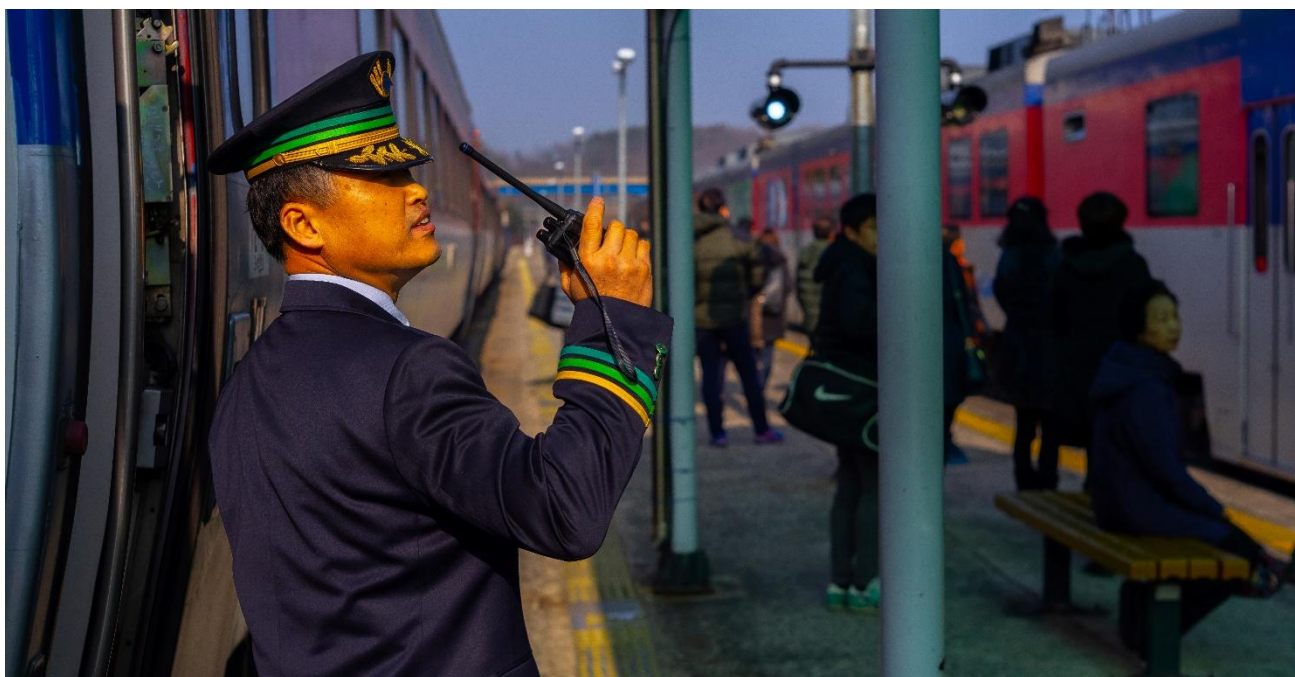
가는 길도, 오는 길도 없이
그저 걸을 뿐.

No path ahead, no path behind...
just walking.

소리는 저쪽에서 나는데,
시간은 이쪽에서 흐르고 있었다.

The sound came from over there,
but time was flowing right here.





모든 출발엔
보이지 않는 준비가 있다.

Behind every departure,
there is an unseen preparation.

그 종이 한 장엔
말보다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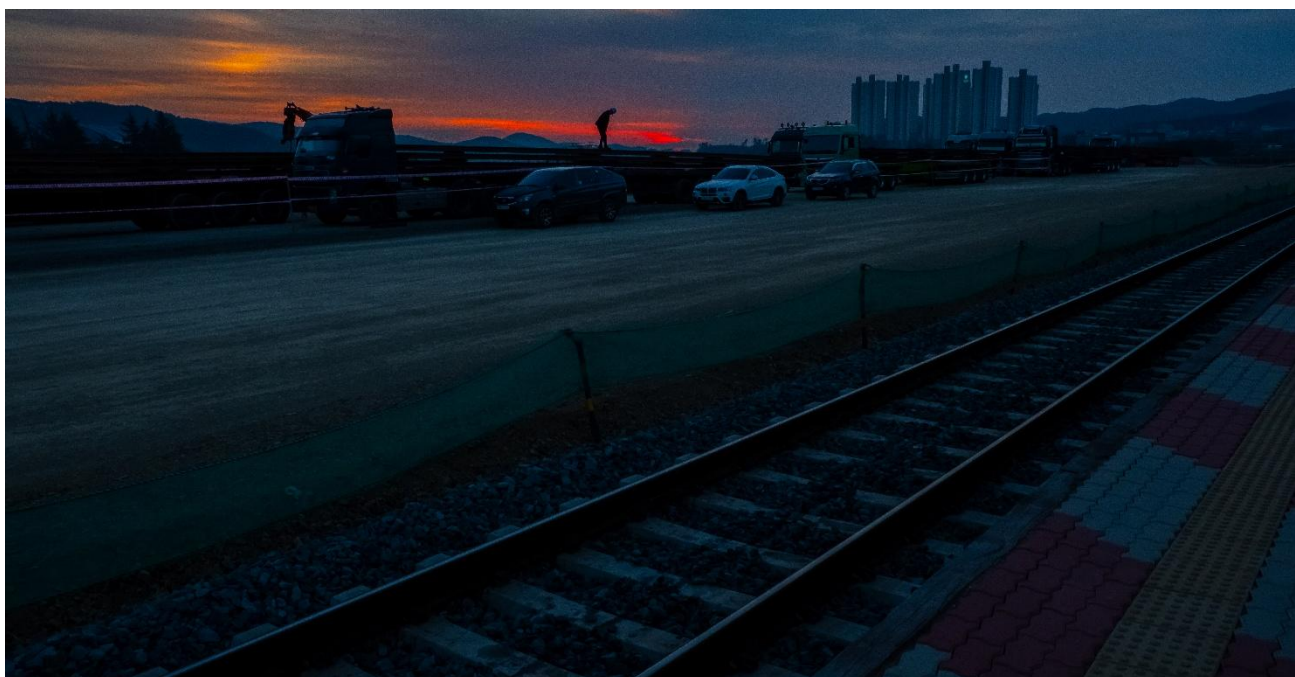
In that single piece of paper,
a heart heavier than words was folded.





여기선 짐도, 마음도
함께 실어야 움직일 수 있다.

Here, even hearts must be loaded
along with the weight of bags.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모든 가능성이 선로 위에 놓여 있다.

The time before anything begins.
All possibilities rest quietly on the tracks.

손끝이 닿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안녕을 건넸다.

Even without touching,
the heart had already said goodbye.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멈춰 있는 눈빛 하나.

Amid the flowing world,
a gaze that stays still.

삶은 늘 정시에 오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웃으며 달린다.

Life rarely arrives on time,
but we still run with laughter.





기차는 잠시 멈췄지만,
사랑은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다.

Though the train had paused,
love continued quietly.

CHAPTER 2 사람, 고요 속을 걷다

: People Walking Through Stillness

마주 잡은 팔 하나에
모든 말을 담을 수 있다.

In a single held arm,
every word finds its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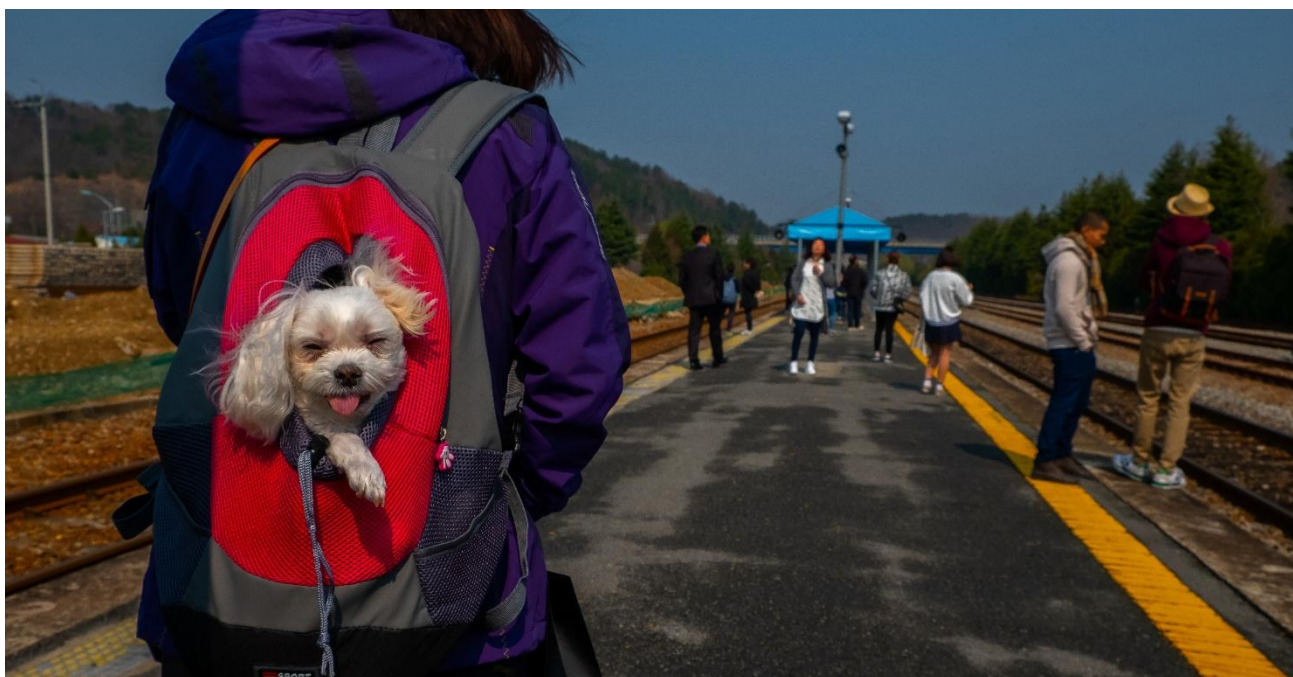
기다림의 공간이
때로는 가장 자유로운 놀이터가 된다.

A place of waiting
can sometimes become the freest playground.

말없이 앉아 있는 시간은
가장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The quietest moments
often hold the deepest stories.





기다림 속에도
웃음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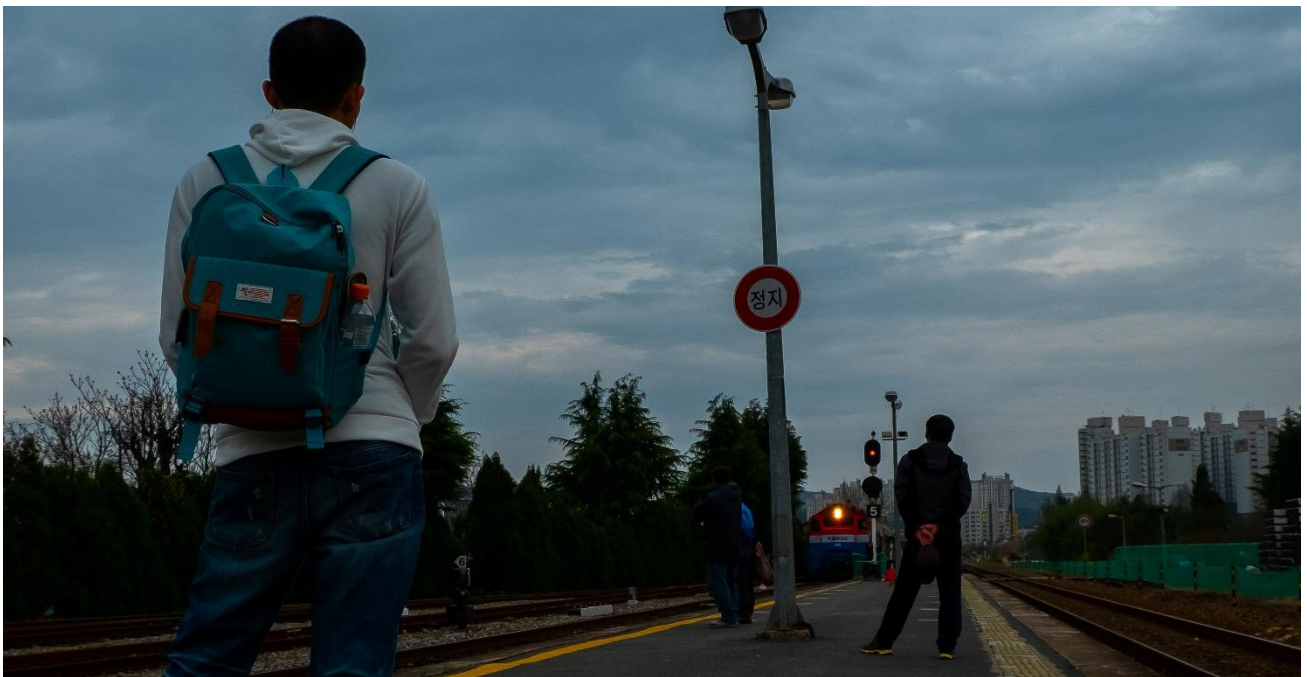
Even in waiting,
joy can appear at any moment.

기차는 멀리서 온다.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이유로.

The train approaches from afar.

Each person waits, for their own rea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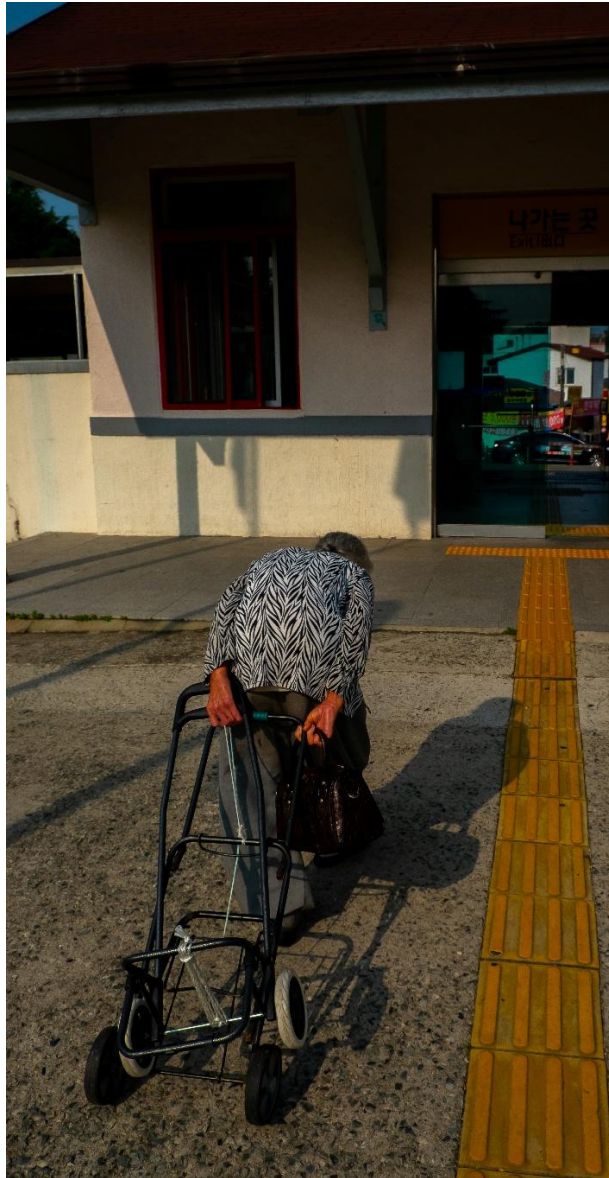
이곳은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마음을 쉬게 하는 장소였다.

This was not a place to pass by,
but one to pause and rest your heart.

기다림은 종종 대화가 되고,
대화는 이내 웃음이 되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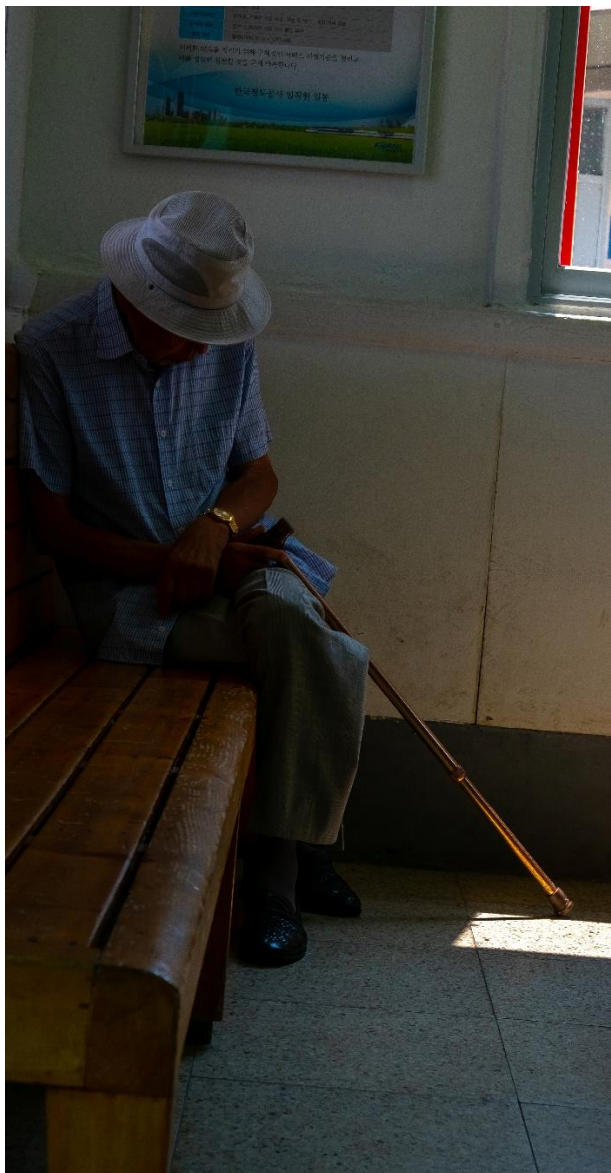
Waiting turns into conversation,
conversation becomes laughter,
and strangers gently become one.





등이 굽어도,
길은 여전히 앞을 향해 나 있다.

Even with a bent back,
the path still leads forward.



빛이 곁에 있어도,
고개를 들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Though the light is near,
too much time has passed to lift the head.



우리는 다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곳을 향해 있다.

We may be different,
but in this moment, we are headed the same way.

CHAPTER 3 멀어지는 것들과 남겨지는 마음

: What Fades Away, and the Heart That Remains



기차는 지나가고,
그 뒤에 남는 것은 묵묵한 손의 흔적이다.

The train passes,
but behind it remain the quiet traces of unseen hands.

모두가 다른 목적지를 향해 있지만,
이 순간만은 함께 머무른다.

Though heading to different destinations,
in this moment, we are all here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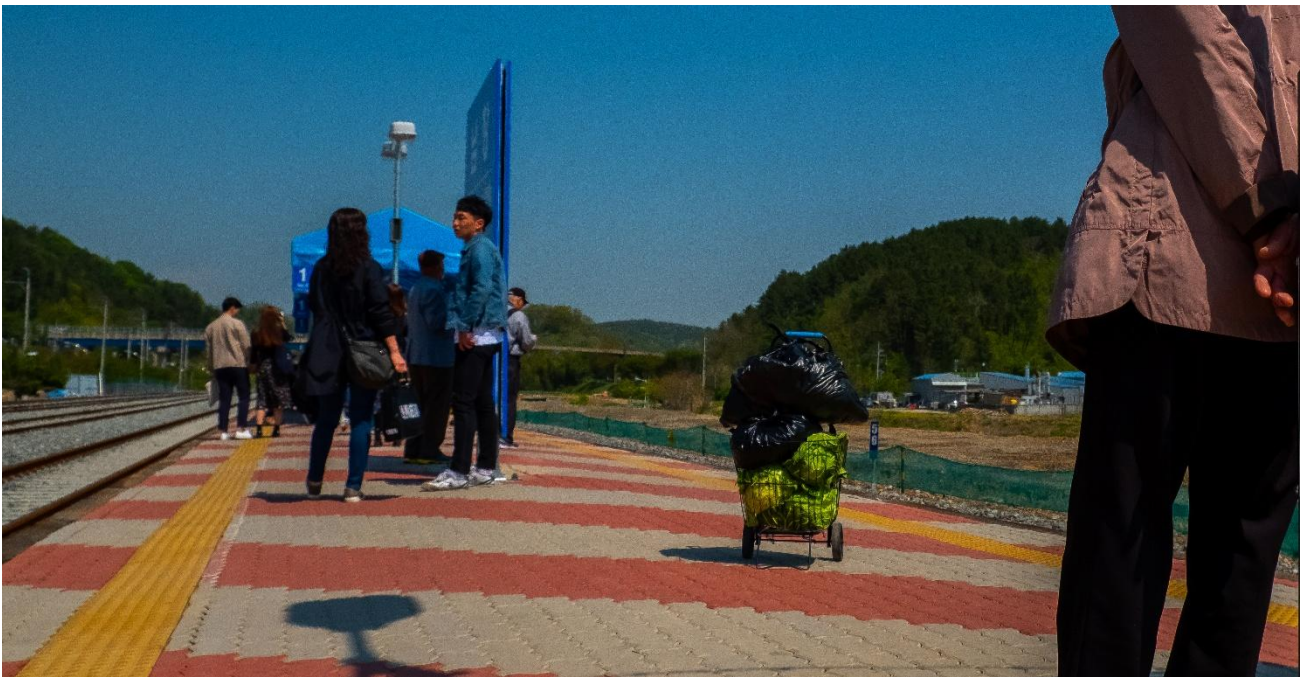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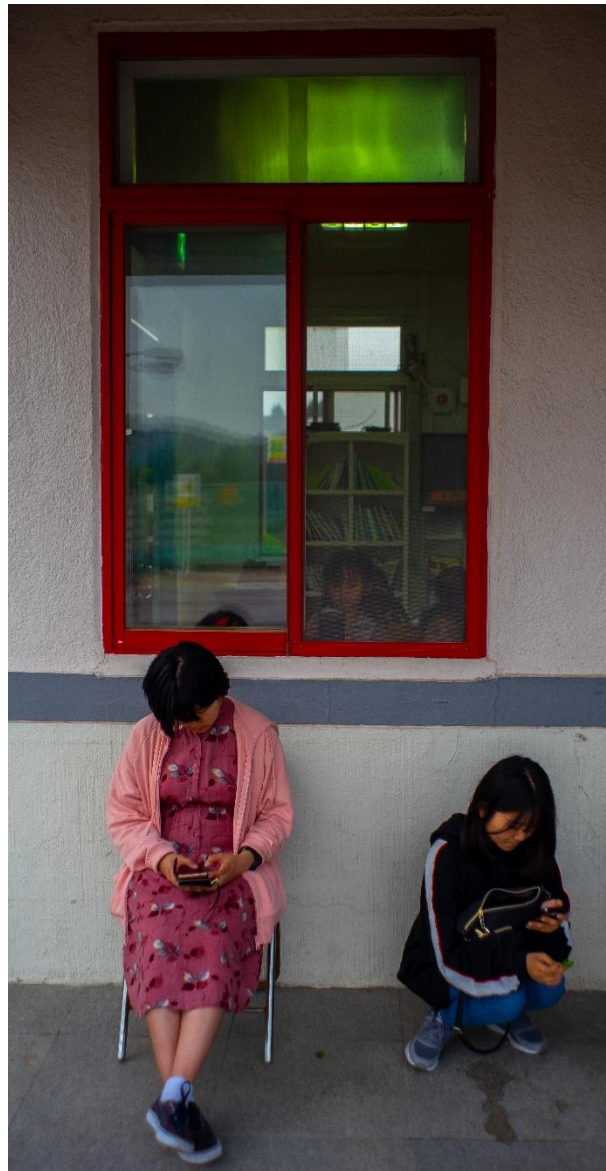
기다림 속에서 아이의 눈동자만은
지금, 이곳을 꿰뚫고 있었다.

In the midst of waiting,
only the child's eyes pierced through the present moment.

말없이 역에 도착한 건,
사람이 아니라 삶의 무게였다.

It wasn't a person who arrived at the station,
it was the weight of a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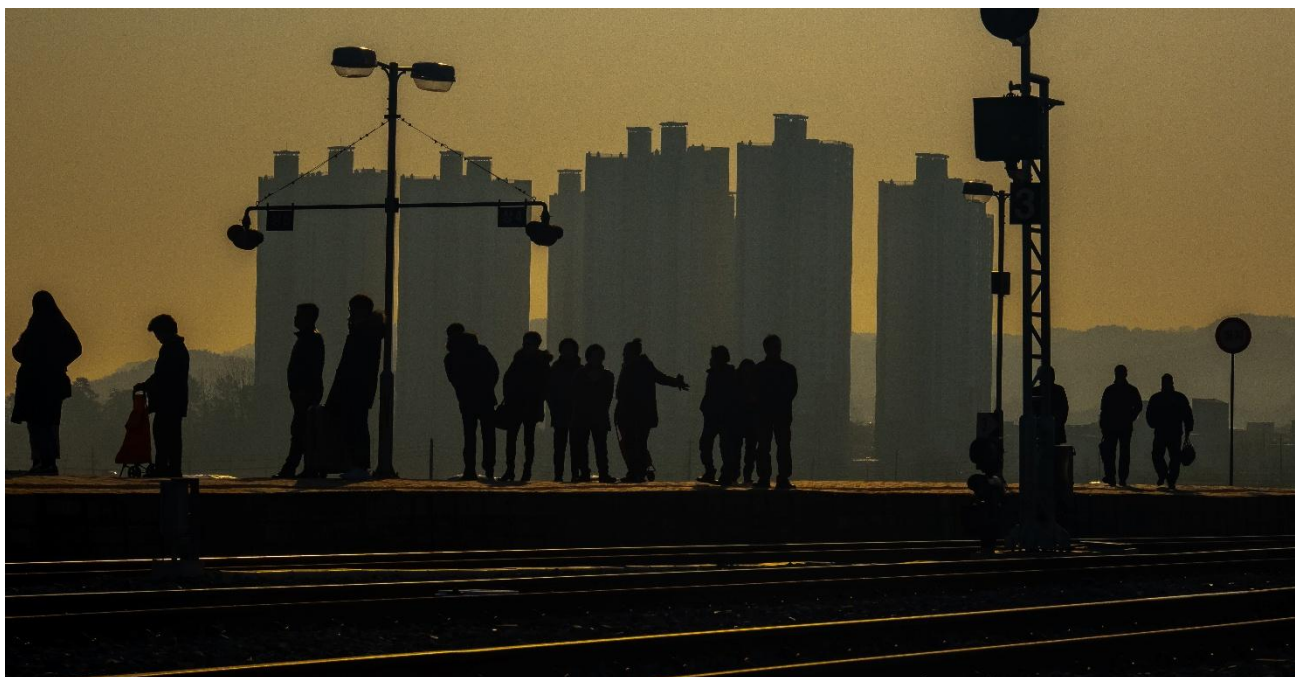
말은 없고, 시선은 흩어지고,
그러나 여전히 함께 있다.

No words exchanged,
no gazes met...
yet still, they remain together.

고요한 플랫폼 위,
그의 손끝에서 인생이 아니라
고무줄이 흘러내렸다.

On a quiet platform,
what flowed from his hands
wasn't life...
but rubber b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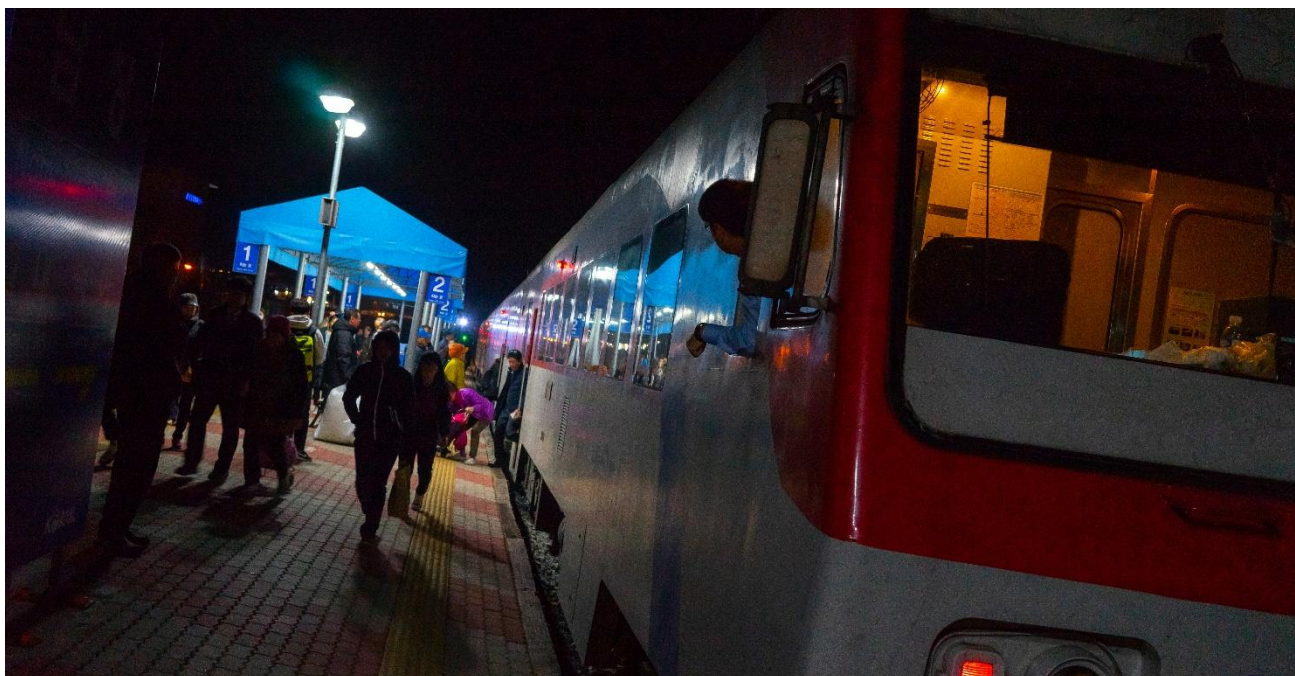
도시의 그림자 아래,
우리는 누구도 모르게
잠시 멈춘다.

Beneath the shadow of the city,
we pause...
without anyone noticing.

작은 어깨 위의 세계.
너를 안는 순간,
세상은 기적이었다.

A world on small shoulders.
In holding you,
the world was a mira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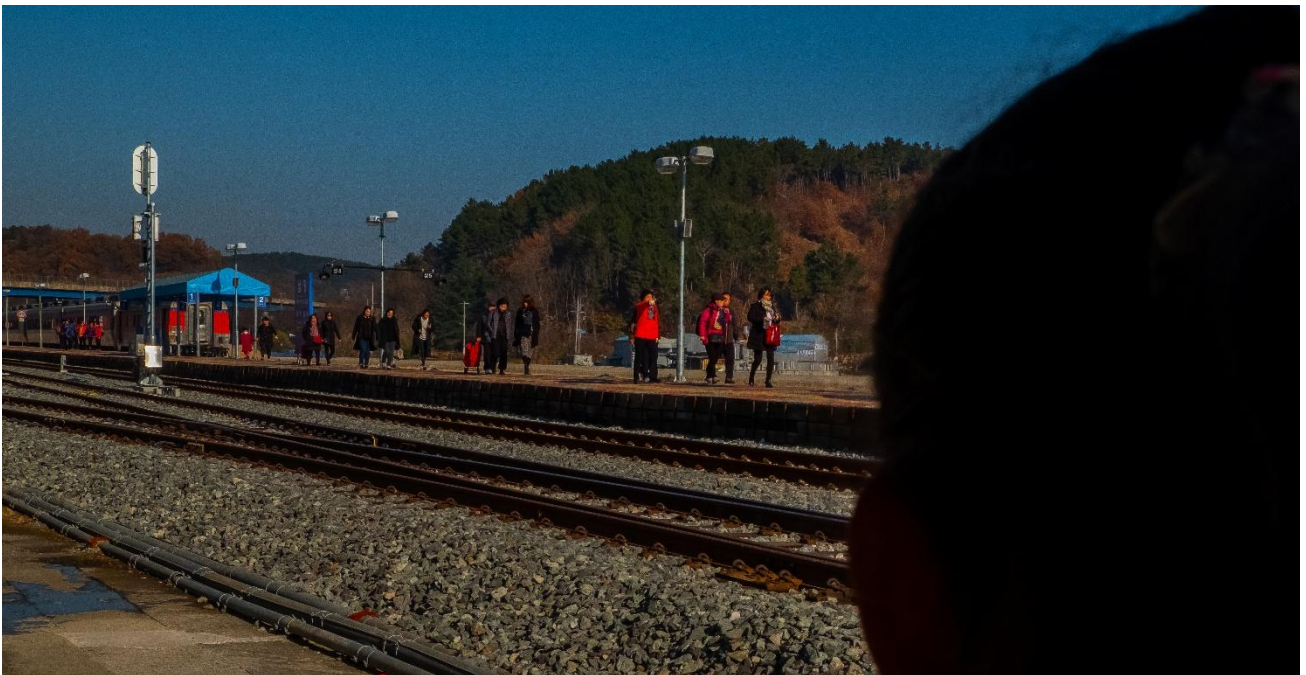


떠남과 만남 사이,
시간은 잠시 멈췄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기차를 타고 있었다.

Between departure and arrival,
time paused for a moment.
But the heart had already
boarded the train.

멀리서 바라본 사람들,
그 속엔 나도 있었다.
기다림은,
늘 나를 되돌아보게 했다.

From a distance, I saw them
and somewhere among them,
I saw myself.
Waiting always led me back to me.



Epilogue

Still, the Station Remains

아무도 없어진 플랫폼,
모든 기차는 지나갔다.
그리고 나도, 그 모든 순간을 지나왔다.

떠나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이젠 없다.
하지만 이 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빛도, 그림자도
이름도, 발자국도
다 사라져도
그 감정만은 어디선가
조용히 살아 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묻지 않는다.
왜 찍었는지,
무엇을 남기려 했는지.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당신도 있었다.”

Epilogue

Still, the Station Remains

The platform is empty now.
All the trains have come and gone.
And I too, have passed through every moment.

Those who waited,
those who departed
they're no longer here.
Yet the station remains,
just as it was.

Even if the light fades,
even if shadows and footsteps vanish,
the feeling
somewhere, somehow
still lingers, quietly alive.

So I no longer ask
why I photographed,
or what I hoped to leave behind.
I simply say this:

“I was there.”
And,
“So were you.”



The Station: Where Memory Pauses

발 행 | 2025년 7월 6일

저 자 | 김이현

펴낸곳 | 유페이퍼

이메일 | khhblack@naver.com

가 격 | 5,900원

Published on | July 6, 2025

Author | Kim I Hyun

Publisher | uPaper

Email | khhblack@naver.com

Price | KRW 5,900

